

나를 바꾸는 일, 그것은 마음을 바꾸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 성전스님 -

신경과 김동억 교수, 체내 축적 줄인 분해형 나노입자를 이용한 뇌혈전 영상 기술 개발

동국대-서울대 공동 연구진이 체내 축적 문제를 줄인 분해형 CT 조영 나노입자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저명학술지 Acs Nano (IF 16.1) 최신호에 발표되었다. 이번 기술은 기존 혈관 조영제와 달리 혈전 자체를 직접 영상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고요오드 함량 고분자를 이용해 강한 CT 신호를 구현했으며 피브린 표적 기능을 통해 혈전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됐다. 동물 실험에서 경동맥 및 뇌혈전 형성 30분 후 조영제를 주입하였고, 즉시 영상화되어 혈전이 선명하게 관찰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활성산소(ROS)에 반응해 시간에 따라 분해되는 구조라는 점이며, 이로 인해 기존 금속 나노입자와 달리 체내 잔류 및 축적 위험을 크게 낮춘 점이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며, 향후 뇌졸중 등 혈전 질환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 전략 결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본 연구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신경과 김동억 교수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안철희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김동억 교수 연구팀은 장희정 박사, 이이수, 김태훈 석사과정생이 참여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기관 선정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출범한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공모 절차를 거쳐 한방병원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한의약 공공정책 추진에 나섰다. 정책지원단은 한의약 정책 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문 조직으로, 2024년 ‘경기도 한의약육성조례’ 개정에 따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치됐다. 한방병원은 △경기도형 한의재택돌봄 모델 구축 △한의약 난임치료 근거기반 정책 고도화 △미래 수요 대응 신규 공공사업 발굴 등 주요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2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고도화, 경기도형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모델 개발 등 관련 용역 사업이 추진된다. 핵심 사업인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2017년 시행 이후 4,000여 명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임신 성공률 21.3%를 기록했다. 한방병원은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결합해 한의약의 제도적 신뢰도를 높이고, 경기도형 한의약 정책 표준화와 전국 확산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일산동구보건소 응급처치 심화 교육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동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응급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15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심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병원 제3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의무교육 대상자를 비롯해 교사, 공무원, 안전관리자 등 다양한 직업군 30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이해를 시작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작동 원리 및 관리 방법, 가슴압박 중심의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요령,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 향상을 도왔다.

